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의료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도: 최 삼 섭 교수〉

이 종 숙

Abstract=

A Status of Student Sickness and Medical Care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Ewha Womans University

Jong Sook Lee, M.D.

(Directed by Professor Choi, Sam Sup, M.D.)

A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student sickness and medical care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linical records of University Health Service and hospitals for student insurance pay claims during the year of 1981.

And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 total number of student patients cared at University Health Service in 1981 was 9,822 and the incidence rate of primary cared was 773 per 1,000 students.
2. A total number of student patients cared at hospitals was 393 and the incidence rate of secondary cared was 31 per 1,000 students and 5 student out of 31 per 1000 was cared under the hospitalization.
3. The evacuation rate of student patients from University Health Service to hospital was 393 out of 9,822 student primary cared or 4.0 percent.
4. The order of 5 major diseases of primary cared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was respiratory system diseases (36.6%), Digestive system diseases (17.4%),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16.0%), Symptoms and undetermined diagnosis (13.7%) and Nerve and sensory organ diseases (12.0%) respectively.
5. The disease order of student patients (333) cared in hospitals as out-patients was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40.3%), Nervous and Sensory organ disease (19.2%), Digestive system diseases (10.8%) respectively.
6. The disease order of student patients (60) cared in hospitals as in-patients was Digestive system diseases (35.0%),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3.3%), Nerve and sensory organ diseases (10.0%),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10.0%), and Symptom and Undetermined diagnosis (10.0%) respectively.
7. The evacuation rate of student patients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to hospital was varied according to disease groups; the lowest rate was the diseases evacuated to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1.5% or 75 out of 5,072 patient primary cared and the highest rate was Neuro-
psychiatry department 63.7% or 7 out of 11 patients.

8. The monthly distribution of student patients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was the highest in
September (17.9%) and April (15.5%) each semester.

9. The monthly number of student patients treated in hospitals was the range 20 to 40 in out-
patients and 2 to 9 in in-patients.

10. The hospital ill days per case were 4.3 ± 5.0 days in out-patients and 9.7 ± 9.5 days in in-
patients.

I. 서 론

대학 학생보건의 목적은 학생의 건전한 대학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학생의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대학생활 환경의 위생적관리 및 건강교육을 통한 대학생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태도를 갖게하여 내일의 사회적 일꾼으로서 합당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생활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²⁾³⁾. 이러한 대학보건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각급대학은 그 대학의 학생수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학보건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의료비공동부조의 목적에서 학생의료공제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³⁾⁴⁾.

이화여자대학교는 일찌기 대학보건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면서 학생의료공제회 기능을 위한 학생의료보험(1969년) 또는 학생의료공제제도(1977년)⁵⁾를 발전시켜왔다. 대학에 있어서 수행되는 건강관리, 환경관리 및 환자진료와 보건교육사업 등이 성격상 1차적 보건의료업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의료공제사업 기능은 1차적 의료와 2차적 의료를 확대포함하는 대학에 있어서의 포괄적인 보건의료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개의료보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국민의료제도를 대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의의 또한 크다고 확신한다.

의료진달체계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그간 많은 연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예기되는 중요문제점의 하나는 1차적진료와 2차적진료 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한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1차적의료와 2차적의료의 기준이 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시설수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과 병원의 기능분장이 명확히 규제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보건소와 학생의료공제회의 조직과 기능이 비교적

명확히 규제되어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중 발생하는 의료수요에 대하여 1차적진료와 2차적진료 수요를 분석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사연구결과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보건소 및 학생의료공제회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뿐만 아니라 각급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의료수요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정리 보고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A. 조사대상

이 조사는 1981년도 이화여자대학교에 등록한 학부,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 12,712명을 대상학생인구로 하였고 그중 대학보건소에서 진료받은 학부,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1차적진료수혜자로 하고 1차 진료받은 학생중 대학보건소 의사 지시에 따라 대학병원 진료과과로 후송된 학생환자와 주말 또는 야간의 응급적 발병 및 부상으로 학생이 대학보건소를 거치지 못하고 환자가 직접 대학병원이나 타병원의 치료를 받은후 학생의료공제 급여를 신청한 학생환자를 2차적진료 수혜자로 구분하였다.

B. 조사방법

이 조사에 있어서 대상학생인구는 대학교 학무처에 등록을 필한 1981년도 제1학기 학생수로 하였다. 학생환자에 대하여서는 1차적진료 환자수는 대학보건소의 진료부 학생환자기록부에 기재된 진단명을 근거로 하였으며 신발생질환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차적진료 환자수는 대학병원 및 기타 병, 의원에서 진료받은 학생환자가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의 진단명을 근거로 국제상병 17기본분류법⁶⁾을 적용하였다.

학생환자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2차적진료환자에 대하여서는 본 조사목적으로 제작한 카드조사표에 조사내용을 이기후 집계하였으며 1차적진료환자에 대하여는 대학보건소의 주간 진료환자 보고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198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에 대학원 및 학부학생 4명의 도움을 받아 자료 수집정리하여 분석을 수동으로 진행하였다.

Ⅲ. 조사성적 및 고찰

A. 학생환자발생과 2차진료기관 환자 후송

1. 학생환자 발생을

1981년도 기간중 대학보건소에서 1차적진료를 받은 신환자 총수(발생)는 9,822명이었으며 그중 9,286명은 학부학생이었고 536명은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이었다. 또한 2차적진료를 대학병원 및 타병원에서 받은 학생 환자 총수는 393명이었으며 그중 학부학생이 358명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이 35명이었다.

한편 2차적진료를 받은 393명 가운데 60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와같은 학생환자 발생을 전체 학생 인구와 대비하여 보면 1차적 진료 환자 발생율은 전체적으로는 학생 1,000명당 773명이었고 학부학생에 있어서는 835명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에 있어서는 331명이었다.

한편 2차적진료 환자 발생율은 전체적으로 학생

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2차진료환자 발생율의 증가는 피부과 질환에 있어서 1977년(56명)에 비하여 1981년(134명)의 후송환자 증가와 안과 후송환자 증가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1981년도에 있어서의 입원환자 발생을 저하 원인은 대학보건소에 있어서의 1차적 진료 기능향상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기능을 강화하므로써 입원치료를 감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계속적인 입원질환에 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2. 2차진료기관 환자후송

대학보건소에서 진료한 1차진료환자중 대학병원이나 다른 2차진료기관으로 후송 치료된 환자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9,822명중 393명으로 4.0%이었으며 학부학생에 있어서는 3.9%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에 있어서는 6.5%이었다. 이와같은 학부와 대학원 학생간의 2차진료기관의 후송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학부학생들은 학과수업이 주간 계속적이어서 대학보건소에서의 1차적진료를 받을 기회가 많음에 비추어 대학원학생들은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일단 대학보건소에서 치료를

Table 1. Incidence of student patients, University Health Service, Ewha Womans University in 1981 (per 1,000)

Student	Medical care		Primary cared				Secondary cared			
	No.	No. of student	No.	Incidence rate	Total		Out-patient		In-patient	
					No.	Incidence rate	No.	Incidence rate	No.	Incidence rate
Under graduate student	No.	11,122	9,286	835	358	32	304	27	54	5
	Transferred rate (%)	—	100.0	—	3.9	—	3.3	—	0.6	—
Graduate student	No.	1,590	536	331	35	22	29	18	6	4
	Transferred rate (%)	—	100.0	—	6.5	—	5.4	—	1.1	—
Total	No.	12,712	9,822	773	393	31	333	26	60	5
	Transferred rate (%)	—	100.0	—	4.0	—	3.4	—	0.6	—

Note: Primary Cared: University Health Services
Secondary Cared: Hospital Services

1,000명당 31명이었고 학부학생에 있어서는 32명,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에 있어서는 22명이었으며 입원치료를 받은 학생환자는 60명으로 발생율은 전체적으로 학생 1,000명당 5명이었다.

이와같은 2차진료환자 및 입원환자에 관한 발생율은 1977년도 동대학교 학생의 2차진료환자 발생율인 학생 1,000명당 8명과 비교할 때 2차진료대상 환자 발생율에 있어서는 1981년도가 현저히 높은 반면에 입원환자 발생율에 있어서는 1981년도가 반대로 현저히 낮은 율

받는 학생에 있어서는 대학원 학생들이 학부학생들에 비하여 더 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입원환자율에 있어서 학부학생은 1차진료환자의 0.6%에 반하여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생들은 1.1%로 거의 학부학생의 2배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Table 1).

B. 질병별 환자발생과 후송환자

1. 질병별 환자발생

발생한 환자의 질병별 발생수를 보면 전체 1차적 진료대상 환자 9,822명중 호흡기계 질환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화기계 질환이 17.4%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16.0%, 증상 및 진단불확실질환이 13.5% 그리고 신경 및 감각기계질환이 12.0%의 순이었다. 한편 2차적 진료대상 환자 393명중 외래진료 받은 333명의 질병별 발생분포는 첫째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이 40.3%로 가장 높은 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 19.2%, 소화기계 질환 10.8%의 순이었으며 입원환자 60명의 질병별 발생분포는 소화기계 질환이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호흡기계 질환이 13.3%,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이 10.0%, 전염병 및 기생충질환이 10.0% 및 증상 및 진단불확실질환이 10.0%순이었다(Table 2). 이와 같은 질환별 환자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1차적 진료환자의 질병별 발생순위에 있어서는 황 등(1982)⁸⁾의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있어서나 농촌지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박(1981)⁹⁾, 김 등(1980)¹⁰⁾의 조사 성적이나 양 등(1968)¹¹⁾ 도시영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전국대상으로 실시한 김 등(1966)¹²⁾의 주민상병

위 질환부터는 조사대상에 따라 그 순위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본 조사에 있어서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의 발생율이 타조사 성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조사대상이 여자대학생이라는 특적인 여드름 및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피부염 등 미용과 관련된 증상발생이 많은데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며, 증상 및 진단불확실질환 발생율이 높은 것은 생리통을 포함시킨데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이 많은 이유는 결막염과 중이염이 많은데 기인되고 있었으며 그 발생원인은 저학년들의 교양체육과목인 수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본조사에 있어서 2차진료환자 발생순위인 첫째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다음 신경감각기계, 소화기계질환의 순서는 이화대학교 의료원 외래환자에 있어서도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었다¹³⁾(Table 2).

2. 임상진료과별 환자분류

1차적 진료환자와 2차적 진료환자를 환자후송편의상 임상진료과별로 분류하여 보면 1차진료대상환자 9,822명의 진료과별 발생분포는 내과 51.7%, 이비인

Table 2. Percentage distribution of student patients by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University Health Service (%)	Hospital (%)		
		Total	Out-patient	In-patient
I.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0.6	1.8	0.3	10.0
II. Neoplasm	0.3	0.8	0.6	1.7
III.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0.4	1.0	0.9	1.7
IV. Diseases of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0.7	1.5	1.8	—
V. Mental Disorders	0.1	1.8	0.6	8.3
VI.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and Sense Organs	12.0	17.8	19.2	10.0
VII.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0.6	0.3	—	1.7
VIII.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36.6	9.7	9.0	13.3
IX.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7.4	14.5	10.8	35.0
X. Diseases of Genito-Urinary System	—	—	—	—
XI. Complication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Puerperium	—	—	—	—
XII.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16.0	34.5	40.3	3.3
XIII.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7	8.9	9.9	3.3
XIV. Congenital Anomalies	—	—	—	—
XV. Certain Causes of Peri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	—	—	—
XVI. Symptoms and Illdefined Conditons	13.5	5.1	4.2	10.0
XVII. Accidents, Poisonings and Violence	0.1	2.3	2.4	1.7
Total	100.0	100.0	100.0	100.0
(No. of Patients)	(9,822)	(393)	(333)	(60)

조사에 있어서나 첫째 순위 질환은 호흡기계 질환이고 둘째는 소화기계 질환이었음을 보이고 있으나 세째순

후과 14.1%, 외과 11.0%, 기타 8.2%, 안과 7.5%의 순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2차적 진료대상환자 393

명의 진료과별 발생분포는 피부과 34.1%, 내과 19.1%, 안과 14.2%, 외과 12.5% 이비인후과 9.9%, 정형외과 6.1% 등이 주된 질환이었다(Table 3-a).

3. 진료과별 후송환자율

Table 3-a. Percentage distribution of student patients evacuated by department

Department	Service	No. of patient university health service		No. of patient hospital transferred	
		No.	%	No.	%
Internal medicine		5,072	51.7	75	19.1
Psychiatry		11	0.1	7	1.8
Dermatology		556	5.7	134	34.1
Surgery		1,082	11.0	49	12.5
Orthopedics		168	1.7	24	6.1
Ophthalmology		739	7.5	56	14.2
E.N.T.		1,387	14.1	39	9.9
Neuro-surgery		2	—	2	0.5
Others		807	8.2	7	1.8
Total		9,822	100.0	393	100.0

대학보건소에서의 1차적 진료시행환자와 2차적 진료를 위해 후송환자의 비율을 임상진료과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b). 즉 내과적 질환환자에 있어서는 1차적 진료환자 5,072명중 75명(1.5%)이 2차진료를 위해 후송 치료받았으며 그중 55명(1.1%)은 외래적치료를, 그리고 20명(0.4%)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편 정신신경과에 있어서는 11명중 7명(63.7%)이 후송되어 그중 5명(45.5%)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피부과는 24.1% 후송중 입원치료 환자는 없었으며 외과는 4.5% 후송에 1.9% 입원치료, 정형외과는 14.3% 후송에 0.6% 입원치료, 안과는 7.6% 후송에 0.7% 입원치료, 이비인후과는 2.8% 후송에 0.5% 입원치료, 기타과는 0.7% 후송에 0.1% 입원치료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9,822명중 4.0%에 해당되는 393명이 2차진료 목적으로 후송되고 그중 3.4%는 외래치료를, 0.6%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와같이 진료분야에 따라 환자 후송율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대학보건소에서의 1차적 진료기능의 제한성과 진료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의료진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차적진료와 2차적진료의 적정 비율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3-b. Hospital treatment rate of student patients referred by University Health Service

Department	Service	No. of Patients University Health Service	No. of patients hospital treatment		
			Total	Out-patient	In-patient
Internal Medicine	No. %	5,072 100.0	75 1.5	55 1.1	20 0.4
Psychiatry	No. %	11 100.0	7 63.7	2 18.2	5 45.5
Dermatology	No. %	556 100.0	134 24.1	134 24.1	— —
Surgery	No. %	1,082 100.0	49 4.5	28 2.6	21 1.9
Orthopedics	No. %	168 100.0	24 14.3	23 13.7	1 0.6
Ophthalmology	No. %	739 100.0	56 7.6	51 6.9	5 0.7
E.N.T.	No. %	1,387 100.0	39 2.8	32 2.3	7 0.5
Neuro-Surgery	No. %	2 100.0	2 100.0	2 100.0	— —
Others	No. %	807 100.0	7 0.7	6 0.6	1 0.1
Total	No. %	9,822 100.0	393 4.0	333 3.4	60 0.6

C. 월별 환자발생

1. 1차진료환자 월별발생

1차진료대상 신환자 총 9,822명에 대한 월별 발생분포를 보면 방학기간인 1월, 2월, 7월, 8월 및 12월을 제외하고는 월간 900명선에서 1,700명선까지의 발생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학기간중 환자 발생이 많은 달은 9월(1,766명) 및 4월(1,520명) 등이었으며 환자발생이 적은 달은 3월(913명) 및 5월(903명)이었다. 이와같이 9월과 4월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환절기에 따른 호흡기계 질환 환자 발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황(1982)⁹⁾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에서도 개학기인 9월에 최고환자 발생을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본조사에서도 2학기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매월 비교적 높은 신환자 발생수를 보이는 반면에 1학기에 있어서는 신환자 발생수에 있어 기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차진료환자 월별발생

2차진료대상 환자 총 393명에 대한 월별 발생분포를 보면 월간 20명에서 40명선 범위를 보이고 있었으며 개학기간과 방학기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2차진료대상 환자중 입원치료 환자수에 있어서는 월에 따라 2명에서 9명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학기간에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이라는 제한성이 입원치료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인상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분석이 요한다고 판단된다(Table 4).

Table 4. Monthly distribution of student patients

Treatment Month	Primary cared		Secondary cared					
	No.	%	Total		Out-patient		In-patient	
	No.	%	No.	%	No.	%	No.	%
January	39	0.4	23	5.8	21	6.3	2	3.3
February	40	0.4	33	8.4	24	7.2	9	15.0
March	913	9.3	33	8.4	27	8.1	6	10.0
April	1,520	15.5	35	8.9	30	9.0	5	8.3
May	903	9.2	36	9.2	32	9.6	4	6.7
June	1,177	12.0	40	10.2	33	9.9	7	11.7
July	137	1.4	44	11.2	37	11.2	7	11.7
August	559	5.7	35	8.9	29	8.7	6	10.0
September	1,766	17.9	38	9.7	34	10.2	4	6.7
October	1,208	12.3	27	6.9	24	7.2	3	5.0
November	1,168	11.9	28	7.1	26	7.8	2	3.3
December	392	4.0	21	5.3	16	4.8	5	8.3
Total	9,822	100.0	393	100.0	333	100.0	60	100.0

D. 2차진료환자의 치료일수

1. 2차진료 외래환자 치료일수

기간중 대학병원이나 타병원에서 2차적진료환자로서 외래진료받은 환자 총 333명의 치료일수를 보면 1~2일간 치료받은 학생이 58.3%, 3~4일간이 19.8%, 5~6일간이 9.0%로 치료일수 4일 미만이 전체의 78.1%였고 7일 미만이 87.1%를 접하고 있었으며 외래평균 치료일수는 4.3±5.0(일)이었다(Table 5-a).

이와같은 평균일수 4.3(일)은 1980년도 우리나라의 료보험 환자¹⁴⁾의 평균외래 치료일수 2.57~2.71(일)에 비하여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차이는 본 조사대상환자는 1차적으로 대학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중 2차진료기관에 후송된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가 일반의료보험 환자들과 같이 1차 및 2차진료 내용이 혼합된 환자에 비하여 더 심한 환자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치료일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a. Ill days of out-patients in hospital

Ill days	No.	%	Cummulated rate
1~2	194	58.3	58.3
3~4	66	19.8	78.1
5~6	30	9.0	87.1
7~8	13	3.9	91.1
9~10	11	3.3	94.3
10 over	19	5.7	100.0
Total	333	100.0	

M±S.D. : 4.3±5.0 (days)

2. 2차진료 입원환자 치료일수

기간중 2차진료환자로서 대학병원이나 타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환자 총 60명의 입원치료일수를 보면 5일 미만이 35.0%, 5~9(일)이 35.0%였으며 10~14일

Table 5-b. Ill days of in-patients in hospital

Ill days	No.	%	Cummulated rate
Less than 5	21	35.0	35.0
5~9	21	35.0	70.0
10~14	7	11.8	81.8
15~19	2	3.3	85.1
20~24	2	3.3	88.4
25~29	5	8.3	96.7
30 over	2	3.3	100.0
Total	60	100.0	

M±S.D. : 9.7±9.5 (days)

이 11.8%로 치료일수 2주일 이내가 전체의 81.8%였으며 입원 평균 치료일수는 9.7 ± 9.5 (일)이었다(Table 5-b).

이와같은 입원학생 치료 평균일수 9.7(일)은 1980년도 우리나라 의료보험¹⁴⁾환자의 평균 입원치료일수 6.75~8.64(일)보다는 다소 많은 것 같다. 이와같은 현상은 본 대상 학생의 연령적 특징과 이에 따른 입원 치료 질환의 종류의 제한성에 의해 전체 연령층과 전체질환을 대상으로하는 일반의료보험환자와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IV. 종합 및 결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의료수요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198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중에 대학보건소와 대학부속병원 및 기타 병, 의원에서 1차 및 2차적 치료를 받은 학생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및 의료공제급여기록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차적 진료환자 발생수는 9,822명이었으며 환자 발생율은 학생 1,000명당 773이었다.
- 2차적 진료환자 발생수는 393명이었으며 그중 60명이 입원치료를 받아 입원치료환자 발생율은 학생 1,000명당 5이었다.
- 대학보건소에서 1차적 치료를 받은 환자중 2차적 치료를 위해 후송된 환자는 9,822명중 393명으로 그 후송율은 4.0%이었다.
- 1차진료대상환자(9,822명)의 5대질환은 호흡기계 질환(36.6%), 소화기계 질환(17.4%), 피부 및 피하조직계 질환(16.0%), 증상 및 진단불확실 질환(13.7%), 그리고 신경 및 감각계 질환(12.0%)의 순이었다.
- 2차진료대상 외래환자(333명)의 3대질환은 피부 및 피하조직계질환(40.3%), 신경 및 감각계 질환(19.2%) 및 소화기계 질환(10.8%)의 순이었다.
- 2차진료대상 입원환자(60명)의 5대질환은 소화기계 질환(35.0%), 호흡기계 질환(13.3%), 신경 및 감각계 질환(10.0%), 전염병 및 기생충질환(10.0%) 및 증상 및 진단불확실 질환(10.0%) 순이었다.
- 1차적 치료를 받은 환자중 병원치료를 후송된 환자에 있어서 후송치료 비율이 낮은 분야는 내과질환 1.5%(5,072명중 75명 후송), 이비인후과 2.8%(1,387명중 39명 후송)이었고 후송율이 높은 분야는 정신신경과 63.7%(11명중 7명 후송) 피부과 24.1%(556명중

134명 후송) 등이었다.

8. 대학보건소에서 진료받은 학생환자의 월별 발생율은 9월(17.9%)과 4월(15.5%)이 높았다.

9. 병원치료를 받은 학생들의 월별 환자수는 외래환자가 20명 내지 40명선이었고 입원환자는 2명 내지 9명이었다.

10. 병원치료를 받은 학생들의 평균치료일수는 외래환자의 경우 4.3 ± 5.0 (일)이었고 입원환자의 경우 9.7 ± 9.5 (일)이었다.

참 고 문 헌

1. 김명호, 문영환: 교양보건,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78.
2. 오형석, 구연철: 대학보건, 일신출판사, 서울, 1965.
3. 최삼섭, 강지용, 구연철: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보건관리와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예방의학회지, 5: 125~132, 1975.
4. 최삼섭, 권병임: 우리나라 대학 학생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의학회지, 12: 3~12, 1979.
5. 대학원요람: 이화여자대학교, 280~281, 1982.
6. 보건백서(하), 서울보건연구회, 87~94, 1981.
7. 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ies and cause of Death, 1967.
8. 황인담, 고대하: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의 최근 10년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전북의대논문집, 6: 4~44, 1982.
9. 박정선: 농촌주민의 상병 및 의료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의학회지, 14: 69, 1981.
10. 김태경, 선한규, 이정규, 정인경: 일개농촌지역의 주민이병실태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지 14: 5, 1982.
11. 양재모, 김명호: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 기초조사, 예방의학회지, 1: 25~36, 1968.
12. 김인달, 허정: 우리나라 상병과 의료에 관한 사회학적연구, 서울대학논문집, 17: 24~44, 1966.
13. 1981년도 연차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1981.
14. 1980년도 보험통계연감, 한국보험공사, 서울, 1980.